

지 상 범 석

수행으로 여기며 삽시다

“부처님 가르침은 거대한 우주방송국 도처에 진리의 파장이 충만하니 언제 어디서나 주파수만 맞추십시오”

에 부처님의 진리의 파장이 충만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주파수만 맞추면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무한 은혜속에 있습니다.

은 내 마음이 창조해가고 원인도 결과도 다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 지은 업력의 흐름일 뿐입니다.

다면 절박을 아무리 오래먹고 법석에 아무리 자주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큰 깨달음을 얻으신 육조 혜능스님은 무려 15년간의 보림기간을 거친 연후에야 세상에 나와 법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속에 보리심 발하여 넓은고집 여의면 '출가' "우연은 없습니다" ... 현재는 과거 내마음의 작용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칭찬 하려는 마음을 가집시다. 인격이 완성되고 성숙될수록 상대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데 비해 미숙하고 부족할수록 단점에 치중해서 헐뜯고 욕하게 된다고 합니다.

룩 생활 한가운데 두고 실천하십시오. 내 마음 가는대로 내 인생이 화(化)하여 옵니다. 수 억겁을 묵은 탐진치의 혼수를 제거하려면 결단성이 있어야합니다.

“나와 남 분별심 쉬고 생각·말·행동으로 이웃 기쁘게하면 운명은 금방 개선됩니다”

것입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표현수단으로 쓰고있는 말은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이 없는 것입니다. 말의 힘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말의 성공법, 말의 건강법입니다. 현실생활이 못마땅해 투덜거리는사람, 알마다 꼬이고 잘안되는 사람, 실패해서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 보면 대체로 평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상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김성구 반아심경과 물리학 유심조와 상보성 원리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측자의 몫 눈앞에 드러난 물리적 실체 '색의 세계'

만 물리학을 떠나서 이해할 수도 있다.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다. 실제로 보이는 상보적인 양을 음·양의 개념으로 보았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대표 이진형 합장